

# 石油價格과 最近의 產油國動向

朴 煥 星

(韓國石油開發公社·弘報담당)

## I. 머리말

世界經濟는 근 2年동안에 걸쳐 石油價格의 하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OPEC 原油의 평균판매가격은 1981년 3월 배럴당 34.80달러에서 83년 1월까지 32.15달러로 완만하게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부터 14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OPEC 회의에서 석유의 公式販賣가격 인하가 결정되어 이를 2월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OPEC 原油의 평균실세판매가격은 2월에 30.35달러, 3월 28.70달러, 4월 28.30달러로 인하속도가 빨라졌다.

石油價格의 下落은 世界經濟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영향에 반하여 油價의 하락은 國際金融面에서는 때때로 걱정스러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대외 채무문제의 악화와 OPEC 諸國에 의한 資金引出에 따르는 國際金融市場의 혼란이 그렇고, 에너지관련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채산악화에 따른 銀行收益, 經營에의 악영향도 油價下落에 기인하는 逆 오일쇼크로 지적되고 있다.

분명히 油價下落이 무질서한 價格引下 경쟁속에서 실시되거나, 또는 단기간에 대폭인하가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심리가 생기게 마련이어서 일시적인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否定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생겼다고 해도 적절한 대응책에 의해 克服할 수 있으므로, 國際金融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우려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本稿에서는 当面한 石油情勢에 관하여 世界의 石油需給均衡問題와 그것이 產油國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하고, 最近의 主要 產油國의 政策動向을 重點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世界의 石油需給均衡 問題

自由世界에 있어서 石油需給均衡問題는 1979년을 境으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

첫째, 1979년까지 매년 순조롭게 增加해온 石油消費가 1979년을 境정으로 감소되기 시작했고, 둘째, 世界의 石油生産에서 차지하는 石油輸出(表 1 참조)의 점유율이 1979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石油가격 지배력도 저하한 것이다. 세계는,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上昇한다고 보여진 石油價格이 1981년 3월 이후부터 인하된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第2次 石油波動에 의해서 크게 오른 石油값에 대한 反應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그 調整過程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 1. 石油消費

自由世界의 石油消費는 1960년부터 1973년에 걸쳐 연율 7% 이상 增加했으나, 이에 계속되는 6년간(1973-79년)의 증가율은 겨우 2%로 저하했다. 이런 시점에서 제 2차 石油波動이 일어났기 때문에 世界의 석유 소비는 침체상태에서 줄어들게 되었다.

세계의 石油消費는 1979년 5,280만B/D를 피크로 1982년 4,630만B/D까지 연율 3%정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소비가 줄어든 것은 세계석유소비의 70%를 차지하는 先進工業國들의 경우이고 나머지 나라의 소비는 保 存 내지 增加傾向을 보였다.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서 工業國들의 石油消費下 落은 연 6.6%에 달했으나, 이런 대폭적인 消費減退의 要因은 ① 景氣沈滯, ② 石油消費節約效果의 향상, ③ 代替에너지 開發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달러時勢의 상승때문에 美國 이외의 나라에 있어서 石油의 輸入價格이 換率을 상회하여 오른 것, 第2次 石油波動 以後는 各國이 石油의 國際價格 上昇을 즉시 國內價格으로 전가한 것, 石油節約 및 代替에너지開發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 대한 減稅 또는 補助金 등의 특전을 부여한 것, 또는 政府 스스로 그러한 投資를 적극 실시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工業國은 두차례의 石油波動을 거쳐 에너지政策을 確立하고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先進工業國들의 景氣가 回復勢로 전환한다 해도 石油消費는 크게 증가할 전망은 흐린 편이다.

非產油 개발도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石油 消費는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쳐 연 6%를 상회하는 기세로 증가했으나, 1979년 이후부터는 정체상태에 있다. 그러나 非產油開發國의 經濟는 그 후 1982년까지 성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GDP단위당 石油消費는 연 2.3%에 그쳤다. 이는 先進工業國의 동비율 7.2%(1979-82년 평균)와 비교하면 낮아 보이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는 一般的으로 石油消費의 소득탄성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석유소비절약과 代替에너지開發에 상당히 애쓴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외채의 누적때문에 石油輸入代金を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非產油개발도상국에 있어서 石油消費의 정체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수출국자체의 石油消費는 급속한 經濟成長率(1973-79년 평균 8.8%)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1973-79년의 增加率(평균)은 13.7%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9년 이후는 그 성장률도 마침내 둔화되어 1979-82년 평균은 8.4%로 떨어졌다.

自由世界에 있어서 石油生産은 1979년 5,530만B/D에서 1982년 4,330만B/D로 연 6.7% 가량 줄어들었다. 石油生産의 減少率이 같은 기간동안 石油消費의 감소율(4.3%)을 상회한 것은 1981년 이후 石油消費水準의 저하에 기인한 과잉석유재고의 방출과 1982년에 들어서서 유가하락을 예상한 적극적인 在庫減少실시 등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부터 시작된 石油生産의 감축은 각국이 고루 실시한 것이 아니라 產油國들의 대폭감산과 石油輸入國들의(先進工業國과 非產油開發途上國) 소폭 증산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9년 당시 世界石油生産의 58.7%를 차지하고 있던 產油國의 세어가 1982년에는 44.3%로 떨어진 데 대해 先進工業國은 27.6%부터 35.1%로, 非產油開發途上國의 경우는 13.7%부터 20.6%로 상승하였다.

1979년 이후 產油國의 지위저하는 생산면에서보다 輸出面에서 더욱 현저했다. 그 상황을 產油國에의 석유소비에 대한 輸出의 비율을 보면, 1979년 56.5%부터 1982년 36.8%로 겨우 3년동안에 20%포인트나 저하했다.

〈表-1〉 世界 石油需給推移

(單位: 百万배럴)

	1979年	1980年	1981年	1982年	1983年
石油輸出國					
生産	31.3	27.6	23.3	19.2	18.2
消費	2.2	2.5	2.7	2.8	2.9
調整	0.5	0.5	0.4	0.4	0.4
純輸出	28.6	24.6	20.2	16.0	14.9
非產油發展途上國					
生産	7.3	7.8	8.4	8.9	9.4
消費	11.0	11.1	11.2	11.2	11.2
調整	0.1	0.1	0.1	-	-
純輸入	3.8	3.4	2.9	2.3	1.8
工業國					
生産	14.7	14.8	14.8	15.2	15.4
消費	39.6	36.7	34.0	32.3	31.7
調整	0.3	0.2	-0.5	-1.6	-1.0
純輸入	25.2	22.1	18.7	15.5	15.3
IMF非加盟國					
純輸出	1.3	1.3	1.2	1.3	1.5
全體					
生産	53.3	50.2	46.5	43.3	43.0
消費	52.8	50.3	47.9	46.3	45.8
調整	0.9	0.8	-	-1.2	-0.6

〈註〉 조정은 B-C油, 제품, 재고변동을 포함.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1982

## 2. 石油生産

産油国들의 이러한 輸出面에서의 지위후퇴가 生産面에서의 지위후퇴(동기간 14%포인트)를 상회한것은 産油国자체의 소비증가, 石油輸入国에 있어서의 생산증가, 비축유방출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 3. 石油價格

世界石油消費가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2/4분기부터이나 石油價格은 그 후도 1년 가까이 상승을 계속했다.

가장 석유시황에 민감한 現物價格은 石油消費減少보다 빨리 1979년 말경부터 하락을 시작했으나, 1980년 후반에 급등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국면은 1980년부터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OPEC石油의 平均실세 販賣價格은 1979년 1월의 13.50 달러에서 1981년 3월의 34.80 달러까지 상승을 계속, 그 후 겨우 下落勢로 접어들었다.

1981년 10월에는 OPEC의 제네바 총회에서 기존원유(아라비안라이트) 가격이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평균가격도 일시적으로 50센트 반등했으나 그 후는 다시 완만하게 떨어졌다.

1982년에 들어서자 石油需要가 減退하는 가운데서 北海나 멕시코 등 非OPEC石油價格이 引下되었기 때문에 OPEC내부에서도 이란, 리비아 등이 기준유가를 하회하는 값으로 石油를 팔아서 生産을 대폭 증가시켰다.

한편 OPEC는 혼란한 石油市場의 안정을 위해 1982년 3월 비엔나총회에서 国別로 生産할당을 결정했으나, 일부국가가 할당량을 상회하여 생산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방임상태로 돌아갔다.

OPEC는 1982년 12월 총회, 그리고 1983년 1월의

石油相회의에서도 生産할당을 협의했으나, 모두 합의에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열상태 속에서 1983년 2월에는 英国石油公社가 北海石油「포테이즈」의 價格을 33.50달러에서 30.50달러로 인하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北海石油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이지리아가 즉시 석유(보니아라이트) 價格을 35.52달러에서 30.02달러로 인하했다. 이에 의해 OPEC로서도 34달러의 기준유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價格引下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OPEC석유상들은 1983년 3월 8일부터 런던에서 회합하고 1주일동안 의논을 계속한 끝에 겨우 의견을 통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월 14일 제67회 OPEC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기준유가를 34달러에서 29달러로 引下, ② OPEC전체의 生産 上한선을 1,750만B/D로 하여 国別할당, ③ 유종간 가격차별(82년 3월) 당시의 水準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상의 총회결과에 따라 各国이 마침내 유가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1983년 10월 현재 OPEC石油의 平均실세 판매가격은 28.48달러라는 1980년 1월 당시의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 4. 앞으로의 石油情勢

産油国의 협조체제 붕괴요인은 첫째, 1982년 3월의 OPEC총회에서 결정된 生産할당이 단기간에 깨어졌다는 과거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이번의 生産할당은 가격 인하와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어서 지난번 보다는 지키기 쉽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의 실패경험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총회에서 石油값이 달러기준으로 15%인

〈表- 2〉 OPEC석유의 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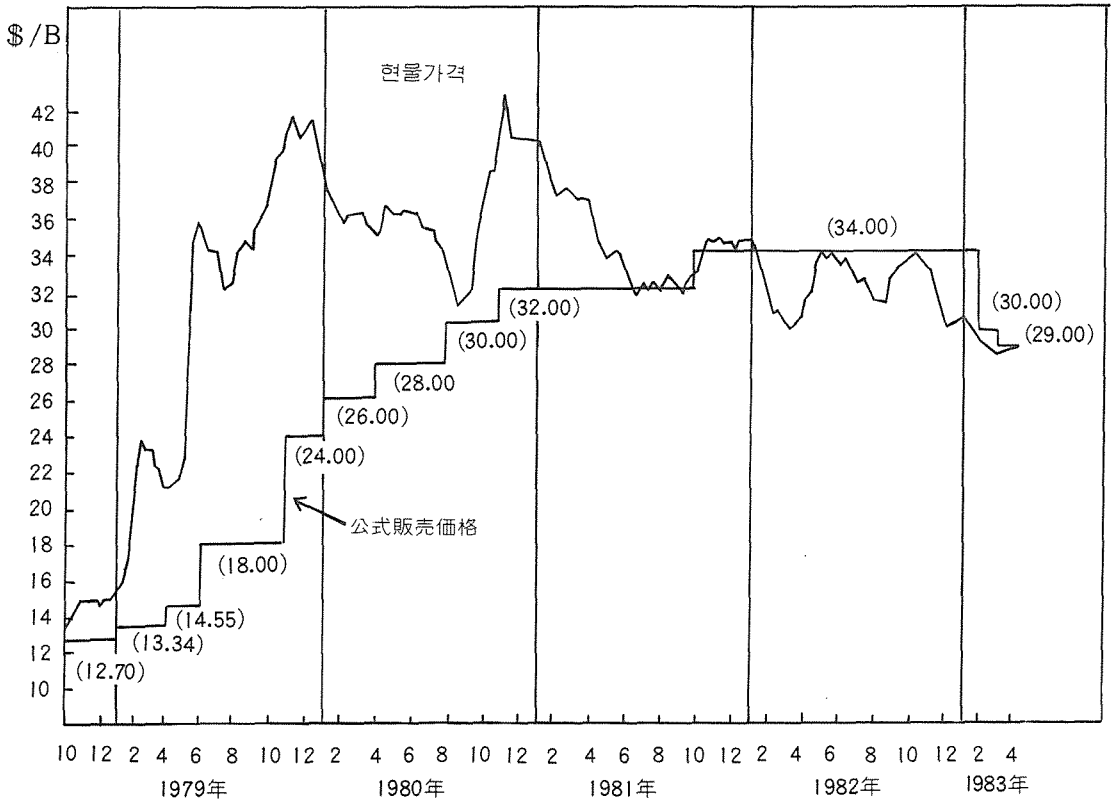
(달러/배럴)

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월 평균
1979	13.50	13.75	13.95	15.90	16.70	18.65	20.25	20.30	20.30	21.05	24.25	26.15	18.73
1980	28.30	29.15	29.15	29.90	30.95	30.95	31.40	32.10	32.10	32.10	32.90	32.90	30.99
1981	34.70	34.75	34.80	34.45	34.50	34.40	34.15	33.90	33.90	34.40	34.05	34.05	34.34
1982	33.85	33.65	33.55	32.80	32.80	32.90	32.95	32.85	32.80	32.50	32.45	32.05	32.93
1983	32.15	30.35	28.70	28.30	28.38	28.41	28.44	28.46	28.48	28.48			

〈註〉 OPEC석유의 공급량에 의한 加重平均價格

〈자료〉 Potroleum Intelligence, Weekly

〈表-3〉 아라비아안라이트 원유가격 동향



〈자료〉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하되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2년동안 달러時勢의 상승을 고려하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그다지 價格引下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강력한 경제부양이 없는 한 석유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OPEC나라들이 지난 총회합의를 生産과 價格 양면에서 완벽하게 준수하면 1983년 石油輸出額은 前年對比 20% 이상의 대폭적인 減少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OPEC의 石油輸出額은 1980년을 고비로 3년동안 계속해서 전년대비 마이너스가 되어,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율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OPEC 제국의 증산에 대한 의욕은 매우 강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있음에도 앞으로는 價格引下競爭이 야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石油輸出의 자유경쟁이 일어나서 값이 대폭 떨어지게 되면 오일셀, 합성연료의 개발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石炭, 天然가스 産業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보호주의가 실시되어 油價下落을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OPEC내부에서도 高價의 油田부터 결국 적자에 빠지기 때문에 市場秩序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石油情勢는 輸入國의 구매력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계석유 소비는 漸減 내지는 保合상태로 推移될 것이다.

그리고 石油生産은 OPEC와 非OPEC産油國 사이에서 어떤 종류의 협력관계 아래 價格과 消費의 均衡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 III. 産油國의 國際收支

産油國의 石油輸出은 1980년 2,970억달러를 고비로 이후 매년 감소되어 1983년에는 1,830억달러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減少現象은 1982년까지는 주로 수량의 減少에 의한 것이었으나 1983년은 價格의 하락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産油國에 있어서 불운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石油輸出의 減少와 병행해서 비석유부문의 수출이 격감된 일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1982년 石油輸出 減少額과 石油에 비해 매우 세어가 낮은 非石油輸出의 減少額이 거의 필적한다는 상황이었다.

이는 1次產品(석유제외)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에 의해 생긴 것이다. 1차산품가격은 1983년도 연평균으로는 전년도를 약간 상회할 정도의 전망이어서 산유국에 있어서는 油價의 하락과 함께 엄격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해서 産油國들은 1982년후 반부터 수입감소정책을 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1982년과 83년동안 계속 감소경향에 있다. 따라서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입억제 내지 삭감의 여지가 있고 또 政策的으로 이를 적극 研究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역의 수지상황을 보면, 전술한 수입억제책은 商品輸入과 連動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의 지불이나 해외노동자의 本國送金을 減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國際金利의 저하에 의해 오일머니의 이자수입이 減少했기 때문에 무역외수지 전체로서는 여전히 적자폭이 늘어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動向에 비추어 産油國의 경상수지를 시산하면 1980년 흑자 1,150억달러를 정점으로 1982년에는 140억달러의 흑자, 1983년에는 140억달러의 적자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表4 參照)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은 GCC(灣岸協力會議)의 일원기이기도 하며 OPEC총회 등에서도 항상 행동을 같이하는 나라들이다.

이에 대해 그 밖의 나라들 속에서도 이란, 이라크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産油國,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처럼 중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등 여러나라들의 동향

〈表- 4〉 석유수출국의 국제수지

(單位: 억달러)

	1979年	1980年	1981年	1982年	1983年
(石油輸出國)					
輸 出	2,140	2,974	2,651	2,183	1,825
輸 入	1,008	1,303	1,510	1,475	1,394
貿易收支	1,132	1,671	1,141	708	431
役務및私의移轉收支	- 434	- 521	- 554	- 568	- 573
經常收支	698	1,150	587	140	- 142
1974年 이후累積經常收支	2,475	3,625	4,212	4,352	4,210
(아라비아半島諸國)					
輸 出	959	1,532	1,570	1,150	855
輸 入	372	465	538	588	601
貿易收支	587	1,067	1,032	562	254
役務및私의移轉收支	- 207	- 271	- 267	- 279	- 287
經常收支	380	796	765	283	- 33
1974年 이후累積經常收支	1,723	2,519	3,284	3,567	3,534
(기타石油輸出國)					
輸 出	1,181	1,442	1,081	1,033	970
輸 入	636	838	972	887	793
貿易收支	545	604	109	146	177
役務및私의移轉收支	- 227	- 250	- 287	- 289	- 286
經常收支	318	354	- 178	- 143	- 109
1974年 이후累積經常收支	752	1,106	928	785	676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출동향을 보면, 1982년까지는 아라비아 반도 여러 나라나 그 밖의 産油國들도 거의 減少現象을 가져왔으나 1983년에는 아라비아반도제국의 수출이 전년대비 26% 줄고, 그 밖의 나라들은 평균 6%를 상회하는 대폭적인 減少現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要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금년 3월의 OPEC 총회에서 결정한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1983년의 石油生産을 前年對比 20% 이상 삭감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란은 OPEC 총회에서 획득한 최대의 生産割當(240만B/D)에 의해서 石油生産을 前年對比 30%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價格面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총회 후 5달러의 引下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이란은 이미 작년도에 價格引下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OPEC 총회 後의 價格引下幅은 3달러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1983년의 輸出減少부담은 아라비아반도제국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데, 한편 이들나라들은 低吸收國(low absorbers)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금액의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해 왔기 때문에 1983년도에 輸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1983년의 경상수지는 1974년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 같다.

한편, 그 밖의 나라들은 1982, 1983년 2년동안 계속 수입을 減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貿易收支는 1981년을 기조로 해서 흑자폭이 확대되고 경상수지 단계에서도 적자폭을 축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産油國全体로서는 輸出減少에 대해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 國際收支調整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들나라 가운데 이란은 예외이며, 石油輸出增加에 호응해서 대폭적으로 輸入을 增加시킬 可能性이 높다.

그러면 産油國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몇몇 主要國들의 최근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V. 主要産油國의 最近動向

###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금년 3월 OPEC 총회에서 결정된 油價引下와 生産調整에 의해 OPEC안에서는 금액상으

로 보거나 減少率로 보거나 가장 大幅的인 減少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收入減少를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나라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이고, 또한 지나치게 팽창된 國家財政을 압축시키기 위해 이 기회를 積極的으로 이용하려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1983/84년도 예산에서 이러한 方針을 엿볼 수 있다. 즉, 1983/84년도 稅入은 2,250億리알(1달러 3,435리알의 환산으로 655億달러, 前年對比 28.2% 감), 稅出은 2,600億리알(757億달러, 前年對比 17% 감) 財政赤字는 350億리알(102억달러)로 대폭적인 축소에 산이다.

前年度 비교는 당초예산에 대한 比率로서, 이를 実績對比로 換算하면 稅入은 7.7% 減少했고 稅出은 6.7%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財政은 작년도부터 大幅的으로 縮小되어 昨年度의 稅入·稅出(공히 약 2,437億리알)은 当初豫算(3,134億리알)의 22%정도 下廻했다. 그 결과 1982/83년도 비석유부문의 GDP 성장율은 1981/82년도의 11%에서 7~8%로 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財政收支는 1977/78년도와 1978/79년도 2회에 걸쳐 大幅的인 赤字를 기록한 일은 있으나, 1983/84년 예산 처럼 当初부터 赤字를 計上한 것은 제1차 石油波動以後 처음 있는 일이다. 1983/84년도 예산의 稅入은 原油輸出輸入 1,600億리알, NGL 및 석유제품수출수입 150億리알, 세수 및 이자수입 500億리알 등이다. 이 중에서 原油輸出은 現在の 生産水準으로 볼 때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란

OPEC 내에서 이란 石油生産의 占有率은 1978년 이전에는 약 20%를 유지하였으나, 그후 이란革命, 이란·이라크戰爭, 이란의 高油價政策 등으로 말미암아 1980~81에는 5~6%로 점유율이 줄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이란은 1982년 2월에 독자적으로 石油價格을 4달러 인하했다. 그 결과, 이란의 石油價格은 OPEC 내에서 가장 低廉하여 石油生産은 급격히 增加했고, 82년도 OPEC 내에서 10.6%의 시장을 회복했다. 또한 이란은 금년 3월 OPEC 총회에서 240만B/D의 쿼터량을 獲得하여 13.7%의 石油市場을 確保하는데 成功했다. 이 쿼터량은 生産調整者 사우디아라비아에 목시적으로 할당된 500만B/D를 제외하면

OPEC 내에서는 最大의 할당량이 된다.

現在 이란은 石油生産의 增加를 배경으로 積極的인 經濟運營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은 1983년도(1983년3월21일~84년3월20일)에 있어서 稅入 32,424億리얄(1달러85리얄 환산으로 약 381億달러, 前年度對比 21.3%증) - 稅出 37,279億 리얄(439億달러 同 8.4%증)의 豫算을 編成했다. 세입은 石油輸入 19,960億리얄(235億달러, 稅入全體의 62%)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출의 內容은 分明하지 않지만 처 이라크전비를 제외한 經常支出은 인플레이제政策으로 약 1%로 統制된 반면, 國內生産회복을 위한 開發支出은 약 30% 增加되었다.

또한 이란은 最近 1983~87년을 대상으로 5個年 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計劃은 재원의 58%를 石油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總投資額 14조1913億 리얄(1,670億달러)을 투입하여 實質成長率 9% (非石油部分의 成長率 7%)을 目標로 하는 매우 의욕적인 計劃이다. 이 계획의 重點事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食량자금체제 확립
- ② 石油의존경제로부터 탈피.
- ③ 社会基盤의 整備
- ④ 人적能力的 開發 등이다.

### 3. 나이지리아

OPEC 13個 회원국중 가장 취약한 나이지리아는 第2次 石油波動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아랍產油國들과 같이 消費生活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1901년 이후 急激히 國際收支가 惡化되어 1982년 4월부터 엄격한 輸入制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食량을 포함한 생필품수입은 삭감이 어려워서 1981年末 약40억달러의 외화준비가 1982년말에 16억달러로 떨어졌고, 이로 인한 결제가 지연된 貿易金融채무(단기대외채무)가 무려 50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政府는 1983년 1월 1일부터 輸入關稅의 인상과 아울러 輸入制限을 크게 강화하고, 1982년 월평균 13억달러에 達하던 輸入을 9억달러 정도까지 삭감할 計劃을 強力히 추진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자국내 不法채류자 및 약 200만명의 外國人근로자의 대부분은 國外로 추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同國은 작년11월에 편성한 豫算案에서 1983년도 石油生産을 100만B/D로 計劃하고 있으나, 高品質

을 배경으로 한 同國의 高油價政策때문에 금년2월의 石油生産은 겨우 67만5천 B/D를 유지했을 뿐이다. 나이지리아는 세입의 85%, 外貨收入의 90%를 石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石油價格引下에 따라 石油生産을 增大할 機會를 엿보고 있던중 금년 2월 油質面에서 나이지리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英國 石油会社가 北海石油(포티즈와 브랜트)의 價格을 2월1일부로 소급해서 배럴당 33.5달러로부터 30.5달러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도 바로 自國石油(보니아이트)의 價格을 35.52달러에서 30.02달러로 2월 1일자 소급인하했다.

이는 OPEC의 價格협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였으나, 그 후 3월 14일 OPEC 런던會議에서 承認받았다.

나이지리아는 OPEC 런던會議에서 130만B/D의 生産량을 할당받았으나, 1983년 세입예산(93억 나이라)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現在の 石油價格으로 120만B/D 生産하면 된다.

### 4.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는 지금까지 유지하던 対比 달러 固定換率制(1달러당 4.2925보리바르)를 폐지하고 변동換率制를 채택했다.

새로운 換率制度는 생필품의 수입, 공적 대외채무의 支拂 및 일부 民間의 대외채무 지불시에 1달러당 4.3 보리바르가 適用되며, 이에 반해 비생필품의 輸入은 1달러당 6보리바르, 海外旅行비용 등 불요불급한 대외지불에는 매일 고시된 最良의 時勢를 適用했다. 石油價格은 2월1일부로 경·중질유가격을 1바렐당 5달러 인하했다. 그러나 石油輸出의 약 80%는 중질유와 石油製品으로 이들 價格은 市場實勢에 따라 인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石油價格引下에 따른 石油輸入減少는 연간 28억달러 정도가 될것이다. 1983년의 石油輸出金額은 약 123億달러로 前年對比 28% 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금년 2월부터 石油價格을 바렐당 5달러 인하하고, 3월에는 자국 루피아를 1달러(미국)당 702.5에서 970루피아로 절하했다. 이 나라의 國際收支는 世界的인 經濟불황과 石油공급과잉으로 1982년부터 크게 악화되었다. 루피아의 大幅的인 評價切下는 1978

년 11월以來 4년4個月만에 실시된 것으로 그 동안 루피아는 대미 달러당 구매력 평가에서 23%정도 過大評價 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27.6%라는 대폭적인 評價切下로 競爭力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輸出總額의 약86%는 石油 및 가스수출이기 때문에 루피아 평가절하에 의한 輸出增大는 기대할 수 없고 다만 輸入削減에 의한 對外收支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1982/83년도(4~3월)의 經常收支를 살펴보면, 輸出은 石油部門, 非石油部門 모두 대폭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輸入이 감소되지 아니하여, 經常收支赤字는 73억달러로 最高의 規模에 도달했다.

1983/84년도에는 石油부문의 輸出價格인하와 OPEC의 생산할당때문에 전년대비 약15%감소한 연간 약20억달러의 經常收支惡化要因이 있으나, 루피아의 評價절하와 여러가지의 조정정책실시로 말미암아 輸入은 大幅적으로 減少될 展望이다.

1978년 11월의 루피아 評價切下(약 33.3%)는 당시 油價暴騰에 따른 지나친 유동성과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를 초래했으나, 이번의 評價切下는 石油價인하, 国内經濟불황 등으로 물가상승율은 비교적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의 調整政策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세입의 60%이상을 석유세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稅制改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 V. 맺는말

세계경제는 석유가격의 하락이라는 국면을 맞이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가하락이라는 상황을 자국의 경제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려는 지혜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견지에서 세계여러나라가 유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펴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유가하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인플레이가 없는 지속적인 안정성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진공업국들은 국내경제정책면에서 금융의 완화와 재정적자의 축소를 추구하는 한편 시장개발에 힘써야 하며, 특히 개발 도상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국내시장을 제공해 나가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석유가격의 격변을 완화·억제하는 정책이 국제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하락과정을 안정화시켜, 혼란을 피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석유소비절약과 대체에너지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며, 정치적인 혼란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제3의 석유파동에 대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겠으나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職務에는 본분을,

生活에는 분수를